

# “올해 태어난 아이, 정부 지원 최대 4,297만원 받는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많으면 4,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에 최대 4,0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3일 '이코노미스트'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내 아이의 육아 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 상황별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으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 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아파트 매입 30대 영끌, 40대 앞섰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모습. 아파트숲이 즐비하다. 사진=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30대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신조어) 매수 비중이 40대를 첫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빚을 갚아야 하는 젊은층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자를 분석한 결

과 전국 매매거래 27만8,974건 중 30대가 7만5,646건(27.1%), 40대는 7만2,055건(25.8%)을 기록했다.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자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대 비중이 40대를 추월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들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반면 전용 60㎡ 초과 135㎡ 이하의 경우 80% 이상 거래가 늘어났다. 30대 영끌족들이 실거주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를 돌파했다. 이에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7%대 금리에도 내 집 마련 수요는 꾸준했다"며 "매물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겨울 마케팅 들어간 편의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봉어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GS25

편의점들이 봉어빵, 호빵, 핫팩 등 한겨울 상품을 대거 선보이며 겨울 마케팅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지난달 초 한겨울 상품인 핫팩을 출시했다. 핫팩은 통상 11월에 출시하는데, 이를 두 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CU 관계자는 "봄, 가을 환절기가 짧아지고 기온 변화가 일찍 찾아오면서 편의점의 상품 운영의 변화 주기도 그에 맞춰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CU는 지난달 중순에는 호빵을 내놨다. 호빵은 겨울철 간식으로 생각되지만 한겨울보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에 가장 많이 팔린다. CU는 최저기온이 10도 초반대로 푹 떨어진 이달부터는 겨울철 많이 팔리는 군고구마와 핫바도 판매한다.

계절을 뛰어넘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한겨울 상품 출시를 앞당긴 경우도 있다. GS25는 지난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길거리 봉어빵을 재현한 상품을 출시했다. 가장 익숙한 크기인 가로 12cm, 세로 6cm에 꼬리까지 팥앙금으로 가득 채운 봉어빵 즉석식품이다. GS25는 봉어빵의 사계절 상시 판매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부터 겨울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와 어묵 판매에 들어갔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9월은 늦더위와 추위가 맞물려 여름 상품과 겨울 상품이 모두 잘 팔리는 때"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겨울 매장 만들기'를 한다"고 밝혔다.

# Kyung Sook Yu, D.D.S

##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